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03

2018 | Vol. 553

요코하마의 노을(横浜の夕焼け)

Photo : KWON KIHUN_요코하마, 2016 한일포토콘테스트 특별상



Photo: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Photo: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일한 정상회담

2월 9일, 오후 3시 15분부터 약 60분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평창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총리대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한 관계

- (1)아베 총리는 ‘일한합의는 국가 간 약속으로, 정부가 바뀌어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제적이고 보편적으로 인정 받는 원칙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모든 약속을 이행했다. 한국 측도 일한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이상, 합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또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측의 입장을 전했다.
- (2)또, 아베 총리는 시모노세키와 부산 현지의 지방 교류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서도 “일한합의와 ‘징용공’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아가 아베 총리는 “올 가을에 맞이할 ‘일한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을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의 계기로 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아베 총리는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 남북 대화가 추진되는 것을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미소 외교’에 눈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올림픽 이후가 고비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의지와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임박한 위협을 직시하고, 일한미가 연계해서 최대한 압력을 가하겠다는 방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안보리 결의로 규정된 제재의 이행은 국제사회 전체의 의무다. 해상에서의 환적 등 대북 제재의 회피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다. 일한미 3국이 연계하여 대응해 가고자 한다. 납치 문제는 일본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조기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연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양 정상은 비핵화가 최종 목표인 점,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모든 회원국이 준수하고, 최대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기타

아베 총리가 “일한중 정상회의를 최대한 조기에 개최하고 싶다”고 말했고, 양 정상은 일한중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Photo: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총리대신은 문재인 대통령 주최 리셉션 및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 및 각국 정상과 환담했다. 또, 리셉션에 앞서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및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이어서, 아베 총리는 개막식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과 함께, 각국의 선수단 입장을 비롯해서 식전을 지켜보았다. 개막식장에서는 펜스 미국 부통령,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등과 인사를 나누었다.

아베 총리, 평창 동계올림픽 일본 대표 선수단 격려 및 JAPAN HOUSE 방문

2월 10일 오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총리대신은 평창과 강릉의 JAPAN HOUSE 등을 방문한 후, 올림픽 선수촌(강릉)에서 일본 대표 선수단을 격려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2월 10일 오후, 아베 총리는 일본올림픽위원회(JOC) · 일본 선수단 ·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리셉션에 참석하기 위해, JAPAN HOUSE(평창)를 방문했다. JAPAN HOUSE에서 평창 올림픽 관련 전시를 둘러본 후, 리셉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2년 후로 다가온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 경기대회에 대한 결의를 표명했다. 또, 다케다 쓰네키카쓰(竹田恒和) 일본올림픽위원회(JOC) 회장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 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서 도쿄 2020 JAPAN HOUSE(강릉)를 방문하여, 도쿄 올림픽 홍보 코너 등을 시찰했다. 아베 총리는 2년 후로 다가온 도쿄 올림픽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현장을 시찰하고, 도쿄 올림픽이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그 후, 올림픽 선수촌(강릉)을 방문하여,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및 컬링에 출전 예정인 일본 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아베 총리는 “여러분이 전력을 다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하고 용기를 얻는다”고 언급한 후, 일본 국민들의 성원을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전하는 동시에, 모든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Photo: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Photo: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Photo: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안도 미키 피겨 스케이팅 선수 인터뷰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를 앞두고 작년 11월 강원도 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된 안도 미키(安藤美姫)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성화 봉송을 위해 지난 1월 29일(월) 춘천을 방문했다. 이날은 안도 미키 피겨 스케이팅 선수 외에, 강원도 홍보대사이자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홍보대사인 장근석 씨, 일본 아이돌 가수 보이즈앤맨, 미조하타 히로시 오사카 관광국 이사장 등이 성화 봉송 주자로 뛰었다. 본지에서는 안도 미키 선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의 근황과 양국 올림픽 개최에 대한 소감 등을 들어보았다.

한국 팬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신데, 현역 은퇴를 발표하신 후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의 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프로 피겨 선수로 일본 국내나 해외에서 아이스 쇼에 출전하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그 외에 TV 출연이나 신문, 잡지 등의 대담과 인터뷰, 칼럼 기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겨 스케이팅 코치가 되고 싶은 9살부터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국내외에서 코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아이의 엄마로서 4살 딸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달리게 되었는데 소감은 어떤가요.

작년 11월, 강원도 관광홍보대사로 임명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 봉송 주자가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전 세계인들의 눈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축제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성화 봉송이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실어 달리는 것은 성화 봉송 주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韓国のファンも非常に気になっているかと思いますが, 現役引退を表明されてからどのような活動をされていますか. 最近のご活動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

プロのフィギュアスケート選手として日本国内や海外でのアイスショーに出場することがメインの活動です. その他にも, テレビ出演や新聞, 雑誌などの対談やインタビュー, コラム寄稿といった活動も行っています. また, フィギュアスケートのコーチになりたいという9歳からの夢を叶えるべく, 国内外でコーチングの活動をしています. もちろん一児の母でもあるので4歳の娘とも貴重な時間を過ごしています.

本日, 2018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の聖火リレーランナーとして走りますが, 感想を聞かせてください.

昨年11月, 江原道観光広報大使として任命していただきましたが, それを契機に今回, 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の聖火リレーランナーとなり, 大変光栄に思っています. オリンピックは, 4年に一度, 世界中の皆さんの目と心が一つになる祭典です. 自身や聖火リレーが行われる地域の人々の心を込めて走るのが聖火ランナーの務めだと思います. 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成功, そして選手たちが本番で怪我なく競技を終え

선수들이 실전에서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성화에 담아 달리겠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경기나 선수가 있다면.
올림픽·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운동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에서 결과를 낸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가 있겠지만, 올림픽에 출전했던 사람으로서 평창에 오시는 모든 선수가 빛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 자신이 피겨 선수라 피겨스케이트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은 쇼트트랙 종목이 매우 강한데, 일본도 최근 동일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열띤 경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피겨 스타 선수로서 한국에도 많은 팬이 있는데, 한국과 관련된 특별한 기억이나 사람이 있나요.

한국에서 경기가 있었을 때, 김연아 선수가 출전한 경기가었는데, 일본 팬들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도 제 이름을 부르며 응원해 주셨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가 있던 지방의 카페에 갔을 때도, 누군가가 ‘안도 미키’라며 이름을 불러주어 일본 팬인 줄 알았는데, 독특한 발음과 억양으로 한국 분이라는 것을 알아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분들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られることを祈り、その気持ちを聖火に込めて走ります。

今回の平昌オリンピックで最もご関心のある競技や選手は。

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に出場する全てのアスリートにスポットライトを当てるべきだと思います。オリンピックでは結果を出せる選手、出せない選手が出てきますが、一人のオリンピックとしては平昌に来る全選手が輝けるように応援したいです。ただ、やはり自分はフィギュアスケーターであるため、フィギュアスケートに注目してほしいです。また、韓国はショートトラック種目が非常に強いですが、日本も最近は同種目で強くなっています。互いにヒートアップできるような競技を見せてほしいです。

日本のフィギュア・スター選手として韓国にも多くのファンがありますが、韓国に関する特別な記憶などはありますか。

韓国で競技があった時、金妍児(キム・ヨナ)選手が出場していた中でも、日本のファンの方だけでなく、韓国の方々も私の名前を呼びながら応援してくださったことがとても印象的でした。競技が行われた地方のカフェに行った時も、誰かが日本語で「安藤美姫」と名前を呼んでくれたので日本人のファンかと思いきや、独特な発音とイントネーションで韓国の方であると気づいたことが





Photo: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난 11월, 강원도 관광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양국 교류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홍보대사가 되었으며, 선정되었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도쿄에서 평창올림픽 홍보 이벤트가 열렸을 때, 한국 측 올림픽 관계자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강원도 관광홍보대사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웃 나라이자, 김연아 선수와는 함께 스케이트를 타던 동료이기도 해서, 솔직히 기뻐했습니다. 미력하지만, 한국에 친구와 지인도 있기 때문에 평창 동계 올림픽 · 패럴림픽 뿐만 아니라, 관광 홍보대사로서 강원도의 매력을 널리 알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림픽 개최 기간 중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칼럼과 대담도 진행하고, 피겨스케이팅 해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도 올림픽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잘 나오는’ 강원도 카페 사진

あります。このように韓国の方々は温かく接して下さります。

昨年11月、江原道観光広報大使として任命されるなど、日韓交流のために多くの活動を行っておられますが、どのようなきっかけで広報大使になり、選定された時の心境はいかがでしたが。そして今後はどのような活動をされるおつもりですか。

東京で平昌オリンピックの広報イベントが行われた時、韓国側のオリンピック関係者に会ったことがきっかけとなり、江原道観光広報大使になってほしいとお声がけをいただきました。日韓は隣国ですし、金妍兒選手とは一緒にスケートをしていた仲間でもあるので、素直に嬉しかったです。微力ではありますが、友人や知り合いも韓国にいますので、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だけでなく、江原道の魅力を観光広報大使として広めていけたら幸いです。オリンピック開催期間中はウェブサイトでもコラムや対談も行い、フィギュアスケートの解説も行う予定です。



Photo: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등 강원도의 매력을 널리 소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기다리는 한국 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일한중에서 2년 간격으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은, 아시아권 스포츠 인구와 스포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그 열기를 2년 후인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으로 이어갔으면 합니다. 올림픽은 개최국의 장점이 드러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평창 시민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 국민들이 자원봉사 같은 서포트 활동에 참여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곧 나라의 매력을 발신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す。また、若い世代もオリンピックを楽しんでほしいという思いで「インスタ映えする」江原道のカフェの写真など、江原道の魅力をたくさん載せるようにしています。

2020年東京オリンピックの開催を待ち望んでいる韓国の方々のメッセージ。

日韓中で2年ごとにオリンピックが開催されるというのは、アジア圏のスポーツ人口やスポーツの強さの表れだと思いますので、誇りに思うべきことだと思います。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成功裏に終え、その熱気を2年後の2020年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につなげられればと思います。オリンピックは、開催国の良さが出る行事だと思います。今回も平昌市民をはじめ、多くの韓国国民がボランティアといったサポート活動に参加していると思います。国民一人一人が発信する力が、国の魅力を発信する原動力であると思います。私もそのような活動を頑張っ参りたいと思います。



고대 양국 교류와 인연이 깊은 영암군과 히라카타시

히라카타시(枚方市)는 교토와 오사카 사이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요도가와(淀川) 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신록이 울창한 이코마(生駒) 산맥이 있다. 동서로 12km, 남북으로 8.7km이며, 면적은 65.12 km²다. ‘히라카타’라는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지만, 나라(奈良, 8세기) 시대에 완성된 ‘일본서기(日本書紀)’에 ‘히라카타’라는 지명이 들어간 단가를 볼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았으며, 헤이안(平安) 시대에는 현재의 히라카타를 포함해서 가타노가하라(交野ヶ原) 지역이 귀족의 수렵지로 알려져 있는데, 긴야(禁野)라는 지명은 지금도 남아있다.

또, 에도(江戸) 시대에는 오사카와 교토를 잇는 도로인 교

카이도(京街道)의 역참 마을로 번창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근교 농촌에서 주택지로 서서히 변모했으며, 1947년 8월 1일, 오사카부의 12번째 시인 히라카타시로 탄생했다. 대규모 주택단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해, 당시 4만 명이던 히라카타의 인구는 현재 40만 명을 넘어서, 인구 규모로는 오사카부 내에서 4번째 도시가 되었다. 2014년 중핵시(中核市)가 되었으며, 2017년에 시 승격 70주년을 맞았다.

전라남도 영암군과 우호도시 제휴

영암군은 전라남도 서남부에 위치하며, 마음이 머무는 영봉 ‘월출산’이 아름답고, 고대 백제의 학자인 왕인 박사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일본 최고(最古)의 역사서인 ‘고사기



재정비 전의 백제사터

(古事記)’에 따르면 왕인 박사는 오진 천황(応神天皇)의 초청으로 백제국에서 도래하여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헌상하고, 왕자에게 학문을 가르쳤다고 한다.

한편, 히라카타시에는 일본 유학의 시조인 왕인 박사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오사카부 사적 ‘전왕인묘(伝王仁墓)’가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유지를 모아 결성한 ‘왕인충 환경을 지키는 모임’은,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적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모역 청소는 물론 참배객과 단체 관광객에게 사적을 안내하고 무궁화 축제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또 영암군에서 개최되는 ‘영암 왕인 문화제’에 참가하는 등 20년 넘게 영암군과 시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 의회 관계자의 상호 방문 등 행정 교류 또한 활발해 졌다.

히라카타시에서는 매년 11월 3일, 왕인묘에서 오사카 일한 친선협회가 왕인 박사를 추모하고 공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박사 왕인 축제’가 열리고 있다. 영암군에서 군수를 비

롯한 행정 관계자와 왕인 박사를 기리는 시민 단체 등에서 다수가 묘소를 방문하여 왕인 박사의 위업을 칭송하며 히라카타시 및 히라카타 시민과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있다.

2004년에는 왕인묘 근처에 있는 히라카타시립 스가와라 히가시 소학교와 영암군 구림초등학교가 우호교류 학교가 되어, 두 학교 사이에 벽보 신문 교류 등의 학교 간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왕인묘를 통한 시민 교류의 축적으로 영암군과 히라카타시는 2008년 3월, 히라카타시의 시 승격 60주년을 계기로 우호도시 제휴를 맺었다.

일본의 특별사적 백제사터

히라카타시에는 영암군과의 우호도시 제휴의 계기가 된 왕인묘 외에도 한국과 깊은 관계를 알 수 있는 사적지가 있다. 그것은 나라시대 후반, 한반도에 있던 백제 왕족의 후손인 백제왕씨(百濟王氏, 구다라노코니키시 씨, 의자왕의 직계손 선광(善光)을 선조로 하는 씨족)가 세운 유적, 즉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시립 히라카타슈쿠 카가야자료관

‘국가지정 특별사적 백제사터(百濟寺跡)’다.

7세기,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한 백제 왕족의 후손인 백제왕씨는 나라 시대 후반부터 헤이안 시대에 걸쳐 상류 귀족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8세기 중반, 백제왕 경복(敬福, 의자왕의 아들 선광의 증손)이 무쓰노쿠니(陸奥国, 일본 동북지방)에서 개넌 황금 900냥을 도다이지(東大寺)의 대불 건립에 헌상한 공로로 이례적으로 승진했으며, 일족의 거점을 나니와(難波)에서 히라카타로 옮겼을 때 건립한 백제왕씨의 흔적이 백제사터라고 한다.

백제사터가 통일신라의 불국사나 감은사지와 비슷한 쌍탑식 가람 배치였다는 사실은 사적에서 엿볼 수 있다. 또 주요 건물과 탑을 받치는 기단이 양호하게 남아있고, 백제왕

씨의 역사적 배경과도 맞물려, 고대 일본과 한반도의 긴밀한 유대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사적이라 할 수 있다. 1941년에 일본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1952년에는 특별사적이 되었다.

그러나, 오사카부에서는 오사가 성터와 더불어 특별사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송과 잡목이 우거지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어, 조릿대 사이로나 초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황폐했었다.

1965년부터 1966년까지 오사카부 교육위원회가 발굴 조사를 실시해, 주요 건물과 탑을 받치는 기단을 복원하고 녹지를 형성하는 등 경관을 정비함으로써 일본 최초의 사적 공원으로 탄생했다.

이로부터 40년 이상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파손과 변형, 표층토의 유출 등이 두드러지자, 다시 발굴 조사를 실시해, 히라카타시의 재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재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맺음말

2018년 3월, 영암군과의 우호도시 제휴 10주년을 맞는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시민 교류, 행정 교류가 앞으로도 지속되어 두 지역의 흔들림 없는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 또 양 시와 군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시민 개개인의 국제 이해를 돕고, 역사적으로도 인연이 깊은 이웃 나라 한국에 대해서 알고, 배우며, 양국의 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집필: 히라카타시, 협력: CLAIR, Seoul)



영암군 구림초등학교에서 히라카타시립 스가와라하기시 소학교로 보낸 벽보 신문

나가사키현 미나미시마바라시



미나미시마바라시(南島原市)는 나가사키현 남부의 시마바라반도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쪽은 시마바라시(島原市), 서쪽은 운젠시(雲仙市)와 접해 있다.

1,000미터가 넘는 운젠산의 산기슭에서 남쪽으로 펼쳐지는, 지하수를 포함한 비옥하고 풍요로운 대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패류가 풍부한 아리아케해(有明海)와 다치바나만(橘湾)을 마주하고 있다. 온난한 기후에, 알맞은 강우량과 일조 시간을 갖춘 지역으로 나가사키현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높은 생산량을 자랑하는 농업 지대다. 또 역사적으로는 일찍이 천주교가 전파되어 예로부터 난반무역(南蛮貿易,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상대로 한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한데, 올 여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하라 성터(原城跡)’는 시마바라·아마쿠사 봉기(島原・天草一揆)가 종언을 고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천주교도 관련 유산의 일부인 ‘하라 성터’

하라성은 당시 천주교인이던 다이묘(大名, 넓은 영지를 가진 봉건 영주)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에 의해 1604년에 축성되었다. 한편, 이 지역에는 모리타케성(森岳城, 현재의 시마바라성)도 축성되었는데, 일국일성령(一国一城の令, 한 지역당 한 개 성만 남긴다는 에도막부의 제한령)에 따라, 1615년 하라성은 허망하게 폐성(廢城)이 되었다. 이 무렵, 이 지역 주민들은 엄중한 천주교 탄압과 조세 징수로 인해 생활이 날로 어려워졌다. 여기에 기근과 홍작이 겹치면서 1637년, 폭정에 시달리던 시마바라 반도와 아마쿠사 지방의 약 3만 7천여 천주교인이 중심이 되어, 당시 16세였던 아마쿠사 시로(天草四郎)를 총대장으로 봉기해, 폐성이 된 하라성에서 약 12만의 막부군을 상대로 농성했다. 이것이 시마바라·아마쿠사 봉기다. 봉기군은 3개월에





걸쳐 군량 보급로를 차단당한 끝에 전멸했다. 봉기 후, 하라성은 막부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봉기군의 시신은 건물 기와나 돌담의 거석 등에 흩으로 덮여 매몰되었다는 사실이 최근의 발굴 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종교 탄압 초기에 시마바라와 아마쿠사의 잠복 천주교인들이 일으킨 ‘시마바라·아마쿠사 봉기’는 막부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일로 인해 그 후 2세기가 넘도록 바다를 통제하는 해금(海禁) 체제가 유지되었으며, 남아 있던 잠복 천주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을 은밀히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봉기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다수 발견된 하라 성터는 전체가 종교 탄압 초기의 물증이 되고 있다.

규슈 올레, 미나미시마바라 코스

규슈에서 17번째로 인증된 ‘미나미시마바라 코스’는 구치노쓰(口之津)의 온화한 경치와 난반무역으로 번성했던 항구 도시, 하야사키반도(早崎半島)의 사계절 자연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코스다. 걷다 보면 하야사키반도의 최고봉인 ‘노로시아마(烽火山) 산’, 예전엔 거숭이 있었지만 지금은 해수욕장과 산을 곁어볼 수 있는 ‘환상의 노무키 소나무’, 호쾌하게 소용돌이 치는 조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세즈메자키 등대(瀬詰崎灯台)’ 등의 절경 포인트가 있다. 또 코스 중에는 지역 주민이 올레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는 ‘무료 쉼터’도 있어 지친 몸을 쉴 수 있다. 코스 후반에는 시마바라반도의 지질학적 명소를 일컫는 ‘지오 사이트’ 가운데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하야사키 해안(早崎海岸)’과 수령 300년이 넘는 ‘용나무 군락’ 등이 있고, 종반에는 메이지 시대(明治時代)부터 구치노쓰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안전을 지켜주던 ‘구치노쓰 등대(口之津灯台)’가 있어, 지금은 올레 이용자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종점에는 과거의 세관을 자료관으로 사용하는 ‘구치노쓰 역사민속자료관’도 있는데, 당시의 난반무역과 석탄 선적항으로 번성했던 구치노쓰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미나미시마바라 코스는 이





곳 주민들을 비롯해, 규슈 각 현의 올레 이용자, 멀리 본고장 한국에서 오신 방문객들도 찾고 있다.

감동을 창조하는 곳, 미나미시마바라

자연이 풍요로운 미나미시마바라의 주민은 정말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하다. 자연이 맞아주는 가운데, 최고의 '오모테나시(극진한 환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나미시마바라의 민박집에서는 투숙객이 그 가정의 가업을 체험하는 규칙이 있어, 체재 중에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도 한다. 각 가정마다 준비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그 순간에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을 함께 경험하는 것도 매력적이다. 가족의 일원이 되어 편하게 보내는 귀중한 시간은 '나 안 돌아 갈래', '다시 오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일본 국내뿐 아니라, 대만과 중국, 그리고 한국 등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일본의 시골 생활 체험'으로서 많이 이용하면서,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심과 안전을 모토로 무엇보다 멋진 만남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다.



맛의 미나미시마바라

자연이 풍요로운 미나미시마바라는 맛있는 식재료가 넘쳐나는 식문화의 보고다. 농작물이 잘 자라는 지역으로 감자, 양파, 토마토 등 다양한 농산물이 수확되고 있다. 또 어패류가 풍부한 아리아케해와 다치바나만에서는 나가사키현의 브랜드 생선인 '아라카부' 즉, 씬뽕이를 비롯해, 시마바라반도의 하시리다코(뛰는 문어), 닭새우, 보리새우, 미역, 톳 등의 어획량이 많다.

그리고 미나미시마바라는 일본 내 소면 생산량 2위를 자랑하는 '시마바라 테노베(수타) 소면'의 산지다. 그 특징은 면발에 탄력이 있고 표면이 매끈해 목 넘김이 좋은 식감에 있다. 수타 제조법은 시간을 들여 반죽하고, 숙성을 거듭하며 늘여야 수타 특유의 강한 탄력이 생긴다. 또 소면은 밀가루와 물이 그 맛을 크게 좌우하는데, 시마바라의 수타 소면에는 좋은 물 100선에 뽑힌 운젠 산록의 맛있는 샘물이 사용된 것도 맛의 비결 중 하나다. 이처럼 미나미시마바라는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고장이다

(집필 : 미나미시마바라시, 협력 : CLAIR, Seoul)



비스트로 쉼

‘비스트로 쉼’은 무슨 뜻이며,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이수용 대표 ‘비스트로’ 하면 이탈리아 요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원래 ‘비스트로’는 카페와 파인 다이닝(고가의 코스요리)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의 중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게(용인시) 주변은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택가라 제대로 된 파인 다이닝을 제공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적을 듯했고, 카페는 너무 캐주얼하기 때문에, 그 중간으로 조금은 캐주얼하면서도 본격적인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비스트로 요리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이름에 ‘비스트로’를 넣었습니다. 그 뒤에 붙는 ‘쉼’은 일본어로 제철을 뜻합니다.



언제부터 일본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수용 대표와 임성민 셰프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이수용 대표 평소, 일본 요리를 좋아했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IT 관련 일을 했는데, 시애틀에 살 때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아내를 위해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스시와 회덮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게를 다니면서 다양한 일본 요리를 접했는데, 일본 요리는 제각각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 등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에서, 본격적으로 일본 요리를 배우기 위해 나카무라 아카데미



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음식을 접하는 마음가짐과 손님을 대하는 태도 등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임성민 셰프를 만난 것도 가게를 시작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성민 셰프 1991년부터 일본 요리를 시작했는데, 손님으로 오신 이수용 대표님과 10년 정도 인연을 이어오다, 우연한 기회에 같이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식 가정 요리’와 ‘오마카세 스시 요리’를 메인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이수용 대표 최근, 한국에는 일본 관련 음식점이 많이 생겼고, 그 종류도 대단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른 곳에 없는 가치를 제공하고 싶어서 결정한 메뉴가 ‘일본식 가정 요리’입니다. 물론 오마카세 요리나 일본





식 가정 요리를 제공하는 곳도 많지만, 주로 강남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오마카세 스시를 즐길 수 있도록 두 요리를 메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임성민 셰프 가정식만으로 일본의 요리 문화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마카세 요리를 하면서,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한 일본식 가정 요리를 제공하면 손님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중점을 두는 부분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이수용 대표 맛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희 요리를 드시고 나서 '마음이 담긴, 따뜻한 음식을 대접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웠던 점이라면, 작년 10월 초 추석이 끝나자마자 가게를 오픈했는데, 긴 연휴로 물가가 오르고 물류시스템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좋은 시기에 오픈하고 싶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일본 요리 관계자와 인터뷰를 해보면 '일본 본토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좋다' 혹은 '어느 정도 대중화를 위해 현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성민 셰프 한국 분들이 드셔도 큰 부담이 없는 요리는 일본식으로 진행하지만, 음식 종류에 따라서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입맛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국이나 간장, 식초가 들어가는 요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식으로 조리하고, 조림이나 국물 요리는 한국식을 가미해서 조리하고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부분은 빼고, 가능한 손님의 의견을 중시하면서 맞춰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리사를 꿈꾸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임성민 셰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과 인간관계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리사는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소통하는 법 등 배울 부분이 많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같이 일하는 동료도 좀 더 일하기 수월하겠구나' 라며, 서로 배려해주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이수용 대표 우선은 비스트로 숲이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것이 1차 목표고, 2차 목표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독립해서 각자 가게를 차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은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며 편하게 느꼈던 도시가 있는데, 상황이 허락된다면 그곳에 자그마한 갓포 혹은 뷰티크 베이커리를 열어, 지역 주민들에게 만드는 방법 등도 알려주며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청춘 18티켓으로 떠나는 일본 여행

백옥화 · 일본문화원 리포터(3기)



신칸센으로는 접하지 못했던 일본의 아름다운 경치를 ‘청춘 18티켓(青春18きっぷ)’을 이용해서 보통열차 등을 타고 느긋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 일본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도 이 티켓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유학생을 포함해서 일본에서 비자를 받고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이 티켓은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교통비가 한국보다 비싸므로, 장거리 이동 시 신칸센과 비행기만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 직장인이야 멀하겠지만, 유학생은 별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장거리 이동 시 유학생에게 좋은 선택지가 ‘청춘 18티켓’이다.

청춘 18티켓이란?

청춘 18티켓은 JR에서 매년 여름 휴가시즌과 겨울에만 판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철도티켓이다. 특급열차와 신칸센은 이용할 수 없고, 오직 JR 재래선(在来線) 보통열차와 쾌속열차만 탑승할 수 있다. 티켓 이름과는 달리,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구매 수에도 제한이 없다. 2018년 현재, 11,850엔에 총5장 구성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1장이 1일권이니 5일권이다. 쾌속열차만으로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면 환승은 기본이요, 최소 5~6시간은 걸린다. 어떤 경우는 약 12시간 동안 열차를 타야할 때도 있으니, 청춘의 패기와 체력이 필요하다. 지하철만으로 서울부터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해보자. 결코, 만만

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고생을 하더라도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귀향과 여행에 대한 의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조차 ‘두 번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은 꼭 해볼 만한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의 연속

신칸센과 달리 재래선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므로 폭설과 폭우로 인한 지연 및 운휴가 잦은 편이다. 따라서, 청춘 18티켓을 이용할 때에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덕분에, 여행은 아주 재미있어진다.



나의 첫 청춘 18티켓 여행은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온 어느 여름날 시작되었다. 도쿄(東京)를 출발해서 니가타(新潟)의 지인 집에서 1박을 하고 아오모리(青森)를 거쳐 삿포로(札幌)까지 가는 여정이었다. 도쿄-니가타 구간에는 일본 열도의 분수령인 미쿠니 산맥(三國山脈)이 있어, 이 구간의 재래선 열차 운항은 기상 상황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필, 니가타로 가는 날은 폭우가 내려, 열차가 에치고유자와(越後湯沢)에서 멈춰 버렸다. 그래서 역에서 준비한 임시버스를 타고 계획에도 없는 에치고유자와-무이카마치(六日町) 구간을 버스로 이동하게 되었다. 열차 손님들은 여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역마다 정차하며 사람들을 하차시키고, 종착지인 무이카마치에 도착했다. 이미 시간은 늦을 대로 늦었지만, 색다른 경험에 만족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추억은, 오카야마(岡山)에서 돗토리(鳥取)로 갈 때다. 화창한 하늘을 보고 잠든 지 한 시간쯤 지났을까. 폭설 때문에 열차가 나아가지 못한다는 안내 방송에 눈을 떴다. 다행히 역에서 준비해준 택시를 타고 돗토리로 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며, 색다른 여정을 즐길 수 있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도쿄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나는 물론 그들 역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으리라. 이렇게 서로 재미있는 추억을 하나씩 만들 수 있었다.

패기와 의지만 있으면 충분!

니가타에서 1박 하고, 아오모리를 거쳐 홋카이도 삿포로로 향하던 때다. 아키타를 거쳐 힘겹게 아오모리에 도착한 나는 홋카이도로 넘어가는 야간 급행열차 하마나스(はまなす)를 기다렸다. 지금은 홋카이도 신칸센(北海道新幹線)이 개통되면서, 세이칸 터널(青函トンネル)을 지나는 재래선 열차가 모두 폐지되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열차가 매일 운행되었다. 청춘 18티켓

소지자는 약 2,000엔을 내면, 하룻밤을 열차에서 지내며 아오모리에서 삿포로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딱딱한 의자에 기대어 불편한 자세로 몇 시간도 지지 못했지만, 얼마나 설레던지... 그렇게, 패기와 의지로 며칠간의 강행군을 마치고, 드디어 홋카이도 삿포로에 도착할 수 있었다.

부지런해야 살아남는다

세 번째 청춘 18티켓 여행은 새해 첫날 도쿄에서 돗토리로 가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성장을 이끌었던 태평양 벨트를 따라 이어지는 도카이도 본선(東海道本線)은 일본의 대도시를 이어주기 때문에, 다른 재래선에 비해 열차가 자주 다니는 편이다. 따라서, 환승 대기시간은 짧은 편이지만, 환승 횟수는 잦다. 참고로 도쿄-오사카 기준으로 6~8회 갈아타야 된다.

도쿄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열차 칸이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사람들은 그대로다. 다들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열차에서 다시 만나는 것으로 보아, 이들도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이 열차를 타고 나고야나 오사카까지 가는 듯했다. 이런 장거리 여정에서는 앉을 수 있으면 앉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열차가 도착하면 사람들은 모두 뒤통을 하고 환승 열차가 기다리는 곳까지 전력 질주한다. 이렇게 사람들 속에 섞여 함께 뛰는 나를 보면서,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은 참 재미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생 간직할 추억

청춘 18티켓으로 여행을 하면서, 외딴 역에 열차가 멈추어 서서 본의 아니게 숙박했던 적도 있었고, 환승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된 적도 있었다. 그래도 1년 동안의 짧은 일본 유학 생활 중에, 청춘 18티켓과 함께한 여행은, 그 때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 이 티켓 한 장만 있으면, 일본의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다. 청춘 18세로 돌아간 기분으로 임할 각오만 있으면 충분하다.



제4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우수 작품 전시

일본 국적자는 '한국의 매력'을 테마로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을, 한국 국적자는 '일본의 매력'을 테마로 일본에서 촬영한 사진을 응모하는 '제4회 한일포토콘테스트'가 성황리에 공모를 마감했다. 지난 1월 15일부터 약 1달 반에 걸쳐 진행된 모집을 통해 8,000점이 넘는 많은 작품이 접수되었다. 3월 14일(수)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사진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실크 갤러리에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기간 3월 30일(금) ~ 4월 13일(금) **전시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공동주최 아키타현, 오키나와관광컨벤션뷰로, 나가사키현, 일반재단법인 산인인바운드기구,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후원 한국관광공사, 아오모리현, 한국엠포스주식회사, 주식회사 니콘이미징코리아, 전일본공수주식회사, 일본항공 주식회사 한국지점,

캐논코리아 컨슈머 이미징(주), (주)인터파크,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에어서울, SAN-AI Co., Ltd. (주)인페인터글로벌, 일본자치체국제협력회 서울사무소,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일본정부관광국 서울사무소, 서울재팬클럽, 교도통신사, 연합뉴스, 일본어저널



J-MUSIC NOTES

와가키밴드

일본악기와 록 밴드를 융합시킨 신 감각의 록 엔터테인먼트 와가키밴드(Wagakki Band 和楽器バンド)다. 8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4월 앨범 '보카로잔마이(ボカロ三昧)'로 데뷔. 2015년 발매한 두 번째 앨범 '야소우에마키(八奏絵巻)'는 오리콘 주간 랭킹 첫 등장에 1위를 획득했으며, 제57회 '빛나! 일본레코드대상 기획상'을 수상했다. 수록곡인 '센본자쿠라(千本桜)' 뮤직비디오는 현재 유튜브 재생 7,500만회를 돌파하며, 전세계에서 수많은 코멘트가 쇄도하고 있다. 일본 국내 라이브뿐만 아니라 뉴욕 및 북미에서 단독공연을 개최하는 등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록 밴드로 주목 받고 있다. 작년, 교토 헤이안 신궁에서 처음 개최된 음악 이벤트 '와가키 서밋 2017' 메인 스테이지를 맡았다. 이 날 공연은 일본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적합한 행사로서 2020년 도쿄올림픽 ·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인 문화 올림픽피어'로 인정을 받았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니시오카 원장 특별강연회 신청 안내 “대학생 여러분, 저와 함께 양국의 문화교류에 대해 이야기 나눠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에 관심 있는 대학생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니시오카 타쓰시(西岡達史)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이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관심 있는 학교 관계자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주제 일한 상호이해를 위한 문화교류

개요 문화적 공통점이 많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깊은 상호이해를 위해 문화 교류가 담당하는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왜 문화교류가 필요한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본다.

문의처 02-765-3011~3(내선 127), 강주연 주임 (e-mail : juyoun.kang@so.mofa.go.jp)



2017년 10월 서경대학교 강연 모습.
서경대학교 한일문화예술연구소 제공

제17기 일본무용교실 & 제11기 사미센교실 수료공연

일본무용교실과 사미센교실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일본을 알기 위한 고전에는 워크숍' 합동수료공연을 개최한다. 일본무용교실은 2000년 1년(월 2회) 코스의 '일본을 알기 위한 일본무용 워크숍'으로 시작했으며, 사미센교실은 2007년부터 열리고 있다.

일본무용교실과 사미센교실은 지난 1년간 수강한 일본무용교실 참가자 20여 명과 사미센교실 참가자 20여 명이 그 동안의 연습 성과를 선보이고, 일본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지막 연습달인 3월에 수료공연을 실시한다. 입장무료.

일시 3월 14일(수) 14:00~16: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일본거문고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정미령 010-7244-6294



제18기 일본무용교실 수강생 모집안내

일본의 전통예술 중 하나인 일본무용을 가르치는 일본무용교실이 2018년도 신규 수강생을 모집한다. 일본무용가 하나야기 순토(花柳春濤) 선생의 지도로 올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년 코스로 월 2회 실시된다. 수강료 무료(단, 소모품 비용은 개인 부담).

기간 2018년 4월~2019년 3월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일본거문고회(日本コムゴの会)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일본무용교실 정미령 010-7244-6294, tanukij@hanmail.net



제12기 사미센교실 수강생 모집안내

사미센 연주자인 이마후지 다마미(今藤珠美) 선생의 지도로 개최되는 사미센 교실이 올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 코스로 월 2회 실시된다. 수강료 무료(단, 소모품 비용은 개인 부담).

기간 2018년 4월~2019년 3월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주최 다마미회(たまみ会)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사미센교실 장규자 010-5387-6641, teevee-no@hanmail.net



2018 고토교실 수강생 모집안내

일본의 전통 현악기 고토를 누구나 즐겁게 배울 수 있다. 고토 사범 도미모토 세이에이(富元清英) 선생의 지도로 개최되는 고토교실이 올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 코스로 월 2회 실시된다. 수강료 무료(단, 소모품 비용은 개인 부담).

기간 2018년 4월~2019년 3월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주최 요시오카호가쿠사(吉岡邦楽社)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요시오카호가쿠사 한국지부 박혜경 010-2970-0746



2018 일본가곡교실 수강생 모집안내

소프라노 가수 김정령 씨의 지도로 일본가곡교실이 올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 코스로 월 2회 실시되며, 일본의 가곡·동요·창가 등을 합창과 독창으로 배운다. 수강료 무료(단, 교재비 등은 개인 부담).

기간 2018년 4월~2019년 3월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사단법인 한일여성친선협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일본가곡교실 김정령 010-9120-4693, 한일여성친선협회 02-2273-7645



*상세한 모집 안내 및 수강 일정 등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에서 공지될 예정이다.



가장고도 먼 이곳나라 앞산, 대양만으로는 알기 힘든
알뜰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